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본격 추진

양돈협, 국내 14개 우수 축산물브랜드 대상 시범사업 진행

홍보부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산 돼지고기 판매처를 확보토록 하기 위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한양돈협회는 2007년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를 시행하기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산돼지고기의 판매처의 확보와 이를 통한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을 통하여 국산 돼지고기 유통상의 문제점인 둔갑판매의 소비자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지난 7월 18일 국내 14개 우수 축산물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돼지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지연되고 FTA 등 수입개방으로 돼지고기 수입이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매점 인증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 사업은 소비자에게

불신을 해소하고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대체 역할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내 양돈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기대가 크다.

양돈협회는 7월중에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내부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8월에 우수 브랜드 업체에서 추천한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14곳 선정과정을 거쳐, 9월부터는 국산 돼지고기 인증 판매점 순회 홍보행사를 개최해 본격적인 인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돈**